



## 화순군, 동절기 복지사각 지대 발굴·지원 팔 걷어

### 내년 2월까지 에너지빈곤층 등 위기가구 발굴

화순군이 에너지빈곤층 등 위기가구 중점 발굴에 나서는 등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화순군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선제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동절기 난방비 피박비 등 생계비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임시일용직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을 감안해 동절기 위기가구 중점 발굴에 나선 것이다.

11일 화순군에 따르면 겨울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독거노인과 건설 일용직 일자리 감소에 따른 위기가구, 전기·가스·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빈곤층 등이 중점 발굴 대상이다.

특히 기초수급 탈락자, 국가, 자

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긴급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등이다.

또한 소득 기준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들불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의료비 과다 지출 가구 등 복잡하고 다양한 어려움이 봉착한 위기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이에 따라 화순군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 맞춤형 복지팀은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군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방문상담을 강화하고, 복지이장(348명),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176명), 마을부녀회, 의료기관 종사자, 방문형서비스수행기관 직원, 학교교육복지사, 자원봉사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 발굴기로 했다.

군은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긴급

복지, 기초생활보장, 에너지 바우처 등 공적지원을 연계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맞춤형서비스연계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계층 등은 지역 내 민간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후원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해 동절기에 3,251건을 발굴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 152건과 쌀, 라면 등 현금·현물 민간 후원 3,099건을 지원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시에는 화순군 희망복지지원단(379-3941~3)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출생복지팀으로 안내하면 된다.

구중곤 화순군수는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 문제 등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며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 순천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가

### 전국 최초 기적의 놀이터 총괄기획자·활동가 위촉

순천시는 전국 최초 기적의 놀이터 총괄기획자와 제2기 놀이터 활동가 5명을 최근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편혜문 총괄기획자는 지난 3년 동안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TF팀 총괄로 활동하면서 연향2지구에 1호 '영똥밭'과 신대지구 2호 '작집'을 시작하자기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하였고, 현재는 서면 강정수변공원에 3호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 중에 있다.

앞으로 편혜문 총괄기획자는 순천시의 어린이공원과 놀이터 조성에 따른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2020년까지 10개소의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5명의 기적의 놀이터 활동

가는 인공호흡 등 응급처치와 안전 교육을 이수하였고 3호 기적의 놀이터 조성과 함께 현장에 배치될 계획이다.

앞서 올해 3월에 위촉된 놀이터 활동가 3명은 기적의 놀이터 1, 2호에 배치되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지킴이 역할뿐 아니라 전국에서 기적의 놀이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에게 안내 역할도 성실히 해 나가고 있다.

기적의 놀이터 조성 후 11월 말 기준 450개소의 지자체와 단체에서 8800여명이 벤치마킹을 다녀갔으며 진주, 여수 등 타지자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서 버스를 이용해 소풍을 오는 새로운 문화도 생겨났

다.

순천시는 지난 6월 30일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며 총괄기획자와 활동가를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앞으로 순천시에 조성되는 민간놀이터에도 기적의 놀이터 정신이 깃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도 함께 담으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갔다.

공원복지사업소 이천식 소장은 "이번 기적의 놀이터 총괄기획자와 활동가 위촉으로 2020년까지 10개소의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해 나갈 기틀을 확고하게 다졌다"며 "순천시가 아이들이 행복한 이동친화도시로 나아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 광양시, AI 유입 차단에 행정력 집중

### 방역 사각지대 무인헬기로 긴급 방역·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광양시가 전국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17일 전북 고창군 소재 농가 1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고, 순천만, 제주도 철새 분변에서도 H5N6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11월 20일부터 순천광양 축협 사료판매장 광양을 유당도 6)에 거점소독시설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 방역차와 축협공동방역단

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과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읍면동 가금농가 담당제를 운영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방문 등 AI 유입 방지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농가, 소규모사육 농가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석회석 500포, 발판소독조 400개, 방역약 품 3종을 공급했다.

특히, 철새로부터 AI가 검출되는 경우도 있어, 시는 무인헬기 방역단을 운영해 매주 1회 이상 수어천과 새골대수, 철새가 도래하는 하천변



등 방역 사각지대 대상으로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김동순 축산팀장은 "지금까지 고창군 농가에서 AI 확진이후 추가발생은 없고 500수 이상 닭 사육농가와 밀집 사육농가가 없고, 100수 미만의 닭사육 농가가 대부분이지만 AI 유입방지를 위해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가급적 삼가고, 외부인이나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 순천만국가정원 겨울 별빛축제 개막

### 내달 7일까지 서문 일원서 개최...아간 입장 오후 5시부터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연말연시 연인 및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겨울 정원의 낭만을 선사하는 '별빛축제'를 마련했다.

이번 축제는 지난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서문 일원에서 개최하며, 아간 입장은 오후 5시부터 별도 입장료로 운영한다.

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산티아고 눈꽃 퍼레이드와 캐럴댄스, 캐럴 마

침밴드공연 및 마술, 마리오네트 인형극 등이 운영된다.

퍼레이드는 매일 2회(18:30, 19:30) 서문일원에서 운영되며, 마술과 마리오네트 인형극은 매주 금·토·일 및 연휴(성탄절, 1월1일)에 1일 2회(인형극 17:00, 19:00 / 마술 18:00, 20:00) 국제습지센터 로비에서 운영된다.

또한, 국가정원의 수목과 조화를

이뤄 화려한 빛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라이트 가든 연출과 어린이들을 위한 스노우볼, 애니메이션 캐릭터 조명, 깃발주전자 및 키즈라이터 등이 연출돼 순천만국가정원민의 환상의 정원을 만날 수 있다.

겨울 밤 하늘에 수놓인 다양한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별빛관측소도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벤트 행사로 24일 저녁 6시 습지센터 야외 공터에서 유명 뮤지컬 배우 서범석 씨와 다수의 배우들과 함께하는 뮤지컬 길러소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정원운영과 최삼림 과장은 "이번 겨울 별빛축제 기간 중 올해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 600만 돌파를 예상하고 있다"며 "아갯강 야시장, 청춘참고 등과 연계한 겨울밤 낭만투어는 체류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처음 시작한 순천만국가정원 세계절축제로 관람객 유치는 물론 대한민국 정원문화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양시, 보해양조(주)와 매실농축액 상품화 추진

광양시가 빛그린매실사업단 매실농축액 생산과 상품화를 위해 보해양조(주)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보해양조(주)에서 대만산 수입 매실농축액 전량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빛그린매실사업단의 농축설비를 이용한 매실농축액 생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빛그린매실사업단과 보해양조(주)는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매실농축액 제조설비 점검을 마치고, 지난 5일부터 보해양조(주) 연구원을 파견해 매실제품 생산 레시피에 따라 매실농축액 시험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시험생산을 거쳐 본격적으로 매실농축액이 생산이 되면 빛그린매실가공유통센터에서는 연간 생매실 1천여 톤을 가공할 수 있게 되어, 빛그린매실사업단 운영 활성화에 기대되고 있다.

시는 매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 소비처 확보를 위해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으로 2014년부터 국비 포함 총 60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다량면 구 신원폐교 부지에 빛그린매실가공유통센터와 매실농축액 제조설비를 구축하고, 매실농축액을 생산하고 있다.

이병남 매실정책팀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최근 매실의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매실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에서는 고품질 매실 생산을 위해 12월까지 272농가를 대상으로 '매실과원 정지·전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빛그린 광양매실'이 대한민국 소비자친화 대표브랜드의 지역특산물 부분으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문화는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